

노인의 우울과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의 관계: 심리적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자기은폐의 매개효과*

권 소 연

전북대학교 / 대학원생

이 영 순[†]

전북대학교 / 교수

본 연구는 노인들이 경험하는 우울이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사회적 낙인과 자기은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에 노인 330명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하여 SPSS 25.0을 사용하여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매개효과 분석을 위해 SPSS PROCESS Macro model 6을 사용하여 부트스트랩 방법으로 유의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연구결과로는 첫째, 우울, 전문적 도움추구태도, 사회적 낙인, 자기은폐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각 변인 간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우울은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있었으며, 사회적 낙인과 자기은폐는 각각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셋째, 우울과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의 관계에서 사회적 낙인과 자기은폐의 이중매개효과를 확인한 결과, 사회적 낙인과 자기은폐를 순차적으로 거쳐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이중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우울, 전문적 도움추구태도, 사회적 낙인, 자기은폐, 노인상담

* 본 연구는 BK21 사업의 지원을 받아 작성된 원고임.

† 교신저자 : 이영순,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전북대학교 부설 심리코칭 연구소, (5489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Tel: 063-270-2928, E-mail: leeys@jbn.ac.kr



우리나라는 2021년에 65세 이상 인구구성비가 17.5%로 고령사회가 되고(통계청, 2021), 2030년에는 25%로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통계청, 2019). 이러한 초고령사회의 진입 속도는 OECD 전체 국가 중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이희성, 권순호 2020), 고령일수록 고독감과 우울감이 증가하고 있다(강선경, 이춘희 2023).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65세~69세 연령군의 우울증상은 8.4%인 반면 85세 이상 연령군의 우울증상은 24.0%로 고연령일수록 우울에 대한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노인의 우울은 자살에 이르게 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심도있게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배강대, 이현림, 2006; Blazer, 2003).

노인은 노화현상과 더불어 경제적 활동에서의 은퇴로 인한 직위의 상실 등과 같은 역할 상실로 노년기로 갈수록 우울증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사회적 역할의 상실과 더불어 배우자의 사망을 경험하게 되면, 남아있는 배우자의 경우 슬픈 감정과 의욕 상실, 불면증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사회적 개인적 활동이 줄어들어 우울에 사로잡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정관용, 2016).

우울의 사전적 정의는 근심스럽거나 답답함으로 활기가 없고 반성과 공상이 따르게 되는 가벼운 슬픔을 느끼는 심리적인 현상이다. 우울증은 개인이 느끼는 슬픔, 불안 및 초조, 죄책감과 같은 정서로 인하여 위축된 특수한 감정 상태로, 슬픈 감정의 정도가 심하고 의기소침한 감정 상태와 생각 그리고 활동을 위축시키게 된다(Blazer, 2003). 우울증은 노인 계층에서 나타나는 가장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Snowden et al., 2008), 일상 기능 및 독립성의 감소, 장애 증가, 자살 및 사망률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으며(Dreizler et al., 2014; Soysal et al., 2017), 장기적인 우울증과 치매를 포함한 인지 장애 간의 연관성도 지적되었다(Do Couto et al., 2016; Soysal et al., 2017). 인간이 경험하는 다양한 감정 중 하나인 우울은 가벼운 수준에서부터 정신치료를 필요로 하는 심각한 수준까지 구분된다. 노인의 경우 전체 노인의 30% 정도가 우울증을 앓게 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Blazer et al., 2002; Colasanti et al., 2010), 다른 계층과 비교하여 우울증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고 재발률 역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Von Faber et al., 2016).

한편 노년기에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어려움을 밝힌 연구들과 다르게 노화에 대한 긍정적 측면을 바라보는 시각도 생기고 있다(Castel, 2018). 노년기에 겪을 수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성공적인 노화에 보다 관심이 많아지고 있으며,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Castel, 2018; Depp & Jeste, 2006; Nakagaw et al., 2021; Vaillant & Mukamal, 2001). 국내에서도 노인의 삶과 만족, 안녕감, 행복 등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곽지현, 이민규, 2006; 유경, 민경환, 2005; 오승환, 윤동성, 2006; 권미애, 김태현, 2008), 노화에 대해 지니고 있는 부정적인 시선과 다르게 노년기에 높은 주관적 안녕감과 행복 수준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최원일, 2020). 한편 Erikson(1994)은 노년기에 해당하는 발달단계를 통합 대 절망의 단계에 해당한다고 제시하였으며 노년기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후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여 자아통합을 이루지 못하면 좌절감, 절망감, 죄책감, 분노 및 자기부정을 경험할 수 있다(이호선,

2012; Erikson, 1994; Hamachek, 1990). 과거의 삶에 대한 후회와 절망으로 현재의 삶에 높은 좌절감을 느끼는 노인은 우울 수준이 높은(이지현, 양수진, 2019; Nygren et al., 2005) 반면, 자아통합감이 높은 노인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고, 우울 수준이 낮다는 결과는(안정신, 2015; Erikson, 1994) 노년기를 성공적으로 보내기 위해 우울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삶을 통합해감으로써 발달과업을 성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인의 심리·정서적인 문제를 예방하거나, 실제로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받아 대처하며 통합적인 노년기를 보낼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노인상담이 있다. 노인상담이란 노인과 노년기에 대해 전문적인 교육과 상담 훈련을 받은 자가 노인 내담자의 욕구를 이해하고 현재 상황의 적응과 성공적인 발달과업을 돕는 과정(정미경, 2017)으로 노년기 적응을 도와주는 심리·사회적 지원체제이다. 실제로 심리상담은 우울과 분노, 자살 생각 등의 심리적 어려움을 완화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관용, 2016; Hyer, 2014). 현행 되고 있는 노인복지법에서도 노인상담을 위해서 시·군·구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노인복지법, 2018), 노인상담이 노인이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것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하지만 권소연과 이영순(2022)의 연구에서 노인상담 경험률은 7.7%로 나타났으며, 65세 이상 노인이 정신건강문제로 실제 치료와 상담이 연계된 비율은 2.2%로 아동 및 청소년, 성인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국립정신건강센터, 2018). 예전부터 아동이나 청소년, 중·장년층 등 다른 연령층에 비해 노인이 상담받는 비율은 저조하였으며(정순돌 등,

2015), 대부분의 노인들은 심리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기보다 신체 관련 전문의를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주용국, 2009).

심리적 문제를 겪고 있으며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를 ‘서비스 갭(service gap)’이라고 하는데(Cramer, 1999), 이러한 서비스 갭 딜레마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 상담자나 심리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지 않아 겪고 있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거나, 적절한 개입 시기를 놓쳐 더 큰 어려움에 빠지기도 한다. 노년기는 건강 악화, 장애 및 치매, 성 문제, 노인 학대, 역할상실, 경제적 어려움 등(이호선, 2012)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는 시기인 만큼, 노년기의 우울은 복잡하고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변화로 인한 결핍으로부터 발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노인이 경험하는 우울에 더욱 관심하여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더욱이 다른 세대의 우울보다 노년기의 우울은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증상구별이 어려워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늦어질 수 있고, 2차 피해인 자살사고의 위험성까지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배민영, 김신열 2022). 따라서 노인들이 전문적인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를 통해 심리적 어려움을 회복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상담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탐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개인의 상담요청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전문적 도움추구태도가 제시되었고(Greenly & Mechanic, 1976), 전문적 도움추구태도가 상담서비스 이용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연희, 안현의, 2005). 전문적 도움추구태도(professional help seeking

attitudes)는 심리적인 문제로 개인이 심리적·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느낄 때 상담이나 심리치료, 정신과 치료와 같은 전문적인 기관을 찾아 도움을 받는 행동에 대한 태도를 말한다(Kushner & Sher, 1991). 이는 친구나 지인에게 도움이나 조언을 구하는 행동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김은아 등, 2018).

계획된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에 의하면 태도는 행동을 수행하기 위한 개인의 노력 정도 및 여부와 같은 심리적 동기인 의도(intention)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의도는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Ajzen, 1991). 계획된행동이론은 인간의 행동화 과정에 관련되는 인지작용에 대한 보편적인 이론 틀로서 노인의 도움추구태도와 결정에 영향을 주는 의도를 비롯한 개인 및 사회 요인들의 관계를 밝힐 수 있는 한편 다양한 분야의 응용에 개방적인 장점이 있다. 도움을 구하는 행동은 문제에 대처하는 적응적인 양식으로 여겨지는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타인의 도움을 요청하는 개인은 정서적·행동적 문제를 덜 경험하게 된다(Fallon & Bowles, 2001). 반면, 전문적 도움추구태도가 낮은 사람들이 전문적인 도움을 기피하여 심리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혼자서 해결을 시도하거나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는 주변 자원들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문제들을 발생시키거나 유지하게 된다(김동민, 양대회, 2010; Leong & Zachar, 1999). 전문적 도움추구태도는 개인의 의도 및 행동에 영향을 미쳐 상담서비스 이용을 예측하는 요인이기 때문에(Fisher & Turner, 1970), 상담서비스에 대한 개인의 도움추구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도움추구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도움추구태도는 성별, 연령, 인종, 종교, 사회경제적 수준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인, 그리고 심리적 고통, 사회적 지지, 자기은폐와 자기개방, 사회적 낙인, 치료에 대한 두려움 등과 같은 심리적 요인들에 영향을 받는다(Cepeda-Benito & Short, 1998; Cramer, 1999; Kelly & Achter, 1995; Komiya et al., 2000; Kushner & Sher, 1989; Larson & Chastain, 1990; Nam et al., 2013; Rickwood & Braithwaite, 1994; Vogel & Wester, 2003). 한편 Kushner와 Sher(1989; 1991)는 도움추구태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접근요인과 회피요인으로 구분하였는데, 접근요인은 상담과 같은 전문적 도움을 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며, 회피요인은 이러한 도움추구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접근요인들로는 성별, 심리적 불편감,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 기존의 상담경험 등이 있고, 회피요인으로는 사회적 낙인, 치료에 대한 두려움, 자기노출, 자기은폐, 자기노출에 따른 유용성과 위험기대 등이 있었다(신연희, 안현의, 2005; Vogel & Wester, 2003).

기존 연구에 따르면, 전문적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결정은 상충하는 접근요인과 회피요인 간의 변화와 갈등의 결과인데(Kushner & Sher, 1991), 전문적 도움추구태도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접근요인의 설명력은 25% 미만인 반면 회피요인의 설명력은 35%~40%로 상대적으로 설명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Vogel & Wester, 2003). 국내 신연희와 안현의(2005)의 연구에서도 접근요인보다 회피요인이 도움추구태도를 더욱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Vogel 등(2007)은 도움추구를 방해하는 회피요인을 잘 이해해야만 전문적 도움추구를

주저하는 잠재적 내담자들의 장벽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도움 추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목적을 두어 두 요인 중 회피요인에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전문적 기관에 상담을 받는 개인의 행동은 태도와 의도에 의해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압력을 개인이 인지하는 주관적 규범과 개인이 특정 행동을 실행하는 것에 대해 지각하는 용이함 혹은 어려움의 정도인 행동 통제력에 의해서도 형성될 수 있다고 본다(Ajzen, 1991). 즉, 개인이 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그들의 중요한 타인들 역시 상담을 받는 것이 긍정적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상담 과정에서 요구되는 행동들을 해낼 수 있다고 판단할 때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와 관련하여 심리적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한 사회적 낙인(social stigma)은 개인의 사회적 관계에서 관련 있는 사람들에게서 지각되는 것으로(Owen et al., 2013), 심리상담을 받는 것에 따른 판단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된 것이다. 이는 어떠한 심리적 어려움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단지 심리상담을 받는 내담자라고 제시한 경우에 덜 호감을 갖고 거리를 두며 정서적으로 불안정할 것이라고 보는 것으로(Sibicky & Dovidio, 1986), 전문적 도움을 받은 집단에 대해 일반 사람들이 부정적 인식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Vogel et al., 2007). 한국 사회에서는 타인의 시선에 신경을 많이 쓰며 체면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최상진, 유승엽, 1992; 최상진, 김기범, 2000), 심리상담 서비스 이용 사실은 낙인의 대상으로 작

용하게 된다(Leong & Lau, 2001). 그리고 사회적 낙인의 결과로 개인은 사람들과 어울리기 힘들며, 자기 효능감이 낮아지고, 사회적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다(Holmes & River, 1998). 사회적 낙인이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권소연, 이영순, 2022; 진경미, 권경인, 2015; 정진철, 양난미, 2010)는 심리적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전문적 도움추구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 사회적 낙인은 전문적 도움추구와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Barney et al., 2006) 특히 아시아의 집단주의적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도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에 부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보고되고 있다(이민지, 손은정, 2007; Ting & Hwang, 2009).

여러 선행연구들의 결과에서 우울 및 불안 등 심리적 어려움이 심리적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한 낙인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Eisenberg et al., 2009; Obasi & Leong, 2009). 우울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더라도 상담을 받는 것에 대한 낙인의 영향으로 도움추구 태도가 낮게 나타났으며(Schomerus et al., 2009), 우울증 환자가 낙인으로 인해 도움을 제때 요청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sirey et al., 2001). 국내 김희철(2018)의 연구에서도 우울, 불안,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적 불편감이 상담을 받는 것에 대한 사회적 낙인에 미치는 경로가 유의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 연구는 대학생에 국한되어 이루어진 연구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대표적 심리적 증상인 우울에 주목하여 전문적 도움추구태도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낙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자신의 정서나 이야기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상담장면에서 자기개방 이후 예측되는 심리적 불편감은 상담 및 심리치료에 도움을 추구하는 것을 저해시키고 실제 심리기관에 도움을 추구하는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한 개인 내적 요인으로 자기은폐가 있다(Cepeda-Benito & Short, 1998; Kelly & Achter, 1995; Komiya et al., 2000). 자기은폐란 개인이 고통스럽거나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사적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꺼려하고 적극적으로 감추려는 경향으로 정의되며(Larson & Chastain, 1990),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불편한 감정, 기억, 정보, 가족의 비밀, 자신에 대한 부정적 생각들, 성적 학대 등의 외상적 경험을 포함한다(Larson & Chastain, 1990). 한국 사회는 남의 시선에 신경을 많이 쓰며 체면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기에(최상진, 유승엽, 1992; 최상진, 김기범, 2000), 적절한 자기개방과 진솔한 정서표현이 요구되는 상담과정에서 자기은폐가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에 회피요인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자기은폐와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에 대해 알아본 Cepeda-Benito와 Short(1998)의 연구결과, 자기은폐로 인하여 상담 필요성을 지각하면서도 정작 상담을 받는 것은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자기은폐는 심리적 불안 및 불편감을 많이 경험하며 사회적 지지를 낮게 지각할 뿐 아니라(양대회, 김동민, 2010; Cepeda-Benito & Short, 1998; Kelly & Achter, 1995), 취약한 사회적 지지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문제 상황 속에서 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하지만 자신을 노출해야 하는 상담 상황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늦어지거나 오히려

심화될 가능성이 커진다(Kelly & Achter, 1995). 즉, 자기은폐로 인하여 자신에 대해 표현하는 것이 서투르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인식도 어려워지면서(이윤승, 유미숙, 2017) 전문적 도움추구에 있어서 회피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김주미, 유성경, 2002; 장진이, 2001; Vogel & Wester, 2003). 국내 연구(김주미, 유성경, 2002; 장진이, 2001) 결과에서도 자기은폐가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기은폐가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공통적으로 밝혀지고 있는 만큼(윤지영, 2007; 이지원, 남숙경, 2016; 장진이, 2001), 노인의 전문적 도움추구태도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관심사보다 집단의 관심사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집단주의 문화 속에서, 개인은 사회화될수록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의 표현을 자제하게 된다(Friedlmeier et al., 2011; Louie et al., 2013). 특히 스트레스를 혼자 삭히며 감내하는 식으로 대처하는 노인(정윤희, 2019)은 심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숨기려는 모습을 보이게 되며 정서적 고통을 은폐할 것으로 보인다. Kahn과 Garrison(2009)의 연구에서 우울이 정서 표현 회피(avoidance of emotional expression)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우울과 정서표현을 억제하는 성향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희경, 2004; 황연미, 2009). 국내에서 우울과 전문적 도움추구태도, 자기은폐의 구조모형을 검증한 연구(최희철, 김지현, 2008)에서 우울과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의 관계를 자기은폐가 매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는 남자 중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에,

한국 노인에게서는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하여 노인이 지각하는 자기은폐가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타인의 시선에 신경을 많이 쓰는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사회에서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는지가 개인행동에 영향을 주게 된다(최상진, 유승엽, 1992; 최상진, 김기범, 2000). 전문적 기관을 통해 상담을 받는 행위가 주위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자신의 진솔한 이야기를 함구하게 만들어 전문적 도움추구태도를 회피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타인이나 집단에 의해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낙인찍히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한다면, 심리적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타인과 상의하기보다는 스스로 극복하고 참는 자기조절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들이 나타난다(이석재, 최상진, 2001). 즉, 자기은폐가 사회적 낙인을 우려하여 방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Lee, Craft, 2002). 사회적 낙인과 자기 낙인, 자기은폐의 관계를 살펴본 국내 연구에서 사회적 낙인과 자기낙인의 관계에서 자기은폐의 매개효과가 유의함을 확인함에 따라(신지혜, 2016; 윤지영, 2007) 사회적 낙인과 자기은폐의 경로를 확인하였다. 이에 한국 노인들이 심리적 도움을 받게 될 때 예견되는 사회적 낙인으로 인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숨기는 자기은폐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상담 및 심리치료에 대한 노인의 전문적 도움추구태도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고자 한국 노인들의 우울과 전문적 도움추구태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사회적 낙인과 자

기은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첫째, 우울, 전문적 도움추구태도, 사회적 낙인, 자기은폐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우울과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의 관계에서 사회적 낙인과 자기은폐가 각각 매개하는가?

셋째, 우울과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의 관계에서 사회적낙인과 자기은폐가 이중매개하는가?

방 법

연구 대상

연구는 만 65세 노인 33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업체에 의뢰하여 패널조사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330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을 살펴보면 남성 59.7%, 여성 40.3%였으며 연령은 60대 60%(198명)에서 가장 높은 분포 보이고 있었다. 최종학력은 대학교 이상 70.9%(234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여부는 하지 않음 56.4%(186명), 하고 있음 43.6%(144명)으로 나타났으며, 월 수입은 100만원 미만 22.1%(73명)이 가장 많았으나, 100~200만원 21.8%(72명)과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결혼은 기혼이 85.2%(281명)로 가장 많았으며, 배우자 81.5%(269명)와 함께 사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상담을 받아 본 경험에 대한 여부를 물어본 결과 경험 없음 86.1%(284명), 경험 있음 13.9%(46명)으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전문적 도움추구태도

전문적 도움추구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Fisher와 Turner(1970)의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척도(Attitude Toward Seeking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 ATSPPH)를 유성경(1998)이 번안하고, 신연희(2004)가 수정한 척도로 측정하였다. 전문적 도움추구태도 척도는 18개의 역채점 문항을 포함한 29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부터 4점(매우 그렇다)의 Likert식 4점 척도로 가능한 점수는 29점에서 116점이다. 높은 점수일수록 심리적 문제에 대해 전문적 도움추구태도가 긍정적임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84$ 이다.

사회적 낙인

사회적 낙인을 측정하기 위하여 Komiya와 동료들(2000)이 개발한 '심리적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한 낙인 척도(Stigma Scale for Receiving Psychological Help)'를 이민지와 손은정(2007)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심리적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묻는 5문항으로 이루어졌다. 1점(절대 아니다)에서부터 4점(매우 그렇다)의 Likert식 4점 척도로 측정하며 점수의 총합이 높을수록 상담을 받는 것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크게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81$ 이다.

자기은폐

자기은폐를 측정하기 위하여 Larson과 Chastain(1990)에 의해 개발된 자기은폐 척도(Self Concealment Scale; SCS)의 문항을 장진이

(2001)가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자신에게 고통스러운 정보를 타인에게 적극적으로 숨기는 경향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총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기은폐는 자기개방과 관련이 있지만, 자기은폐는 적극적으로 은폐하기 위해 시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자기개방은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개념적 경험적인 차이가 있다(Larson & Chastain 1990).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부터 5점(매우 그렇다)의 Likert식 5점 척도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은폐 경향이 큰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91$ 이다.

우울

우울을 측정하기 위하여 노인·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미국 CES-D 척도의 단축형으로 Anderson 등(1994)이 개발하고 박병선, 정수용 (2020)이 타당도를 검증한 CES-D 10 Anderson form을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본 척도는 최근 일주일 간 대상자의 우울 증상을 사정하기 위한 검사로 각 문항은 0점(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거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음)에서부터 3점(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음)의 Likert식 4점 척도로 측정되며, 총점이 높을수록 우울 증상의 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81$ 이다.

연구 절차

본 연구는 분석을 위해 SPSS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분석 절차로는 첫째, SPSS 25.0을 이용해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하였고, 각 측정 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또한

변인들 간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s 상관계수를 사용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우울이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우울이 사회적 낙인과 자기은폐를 매개로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영향을 주는 지 알아보고자 Hayes(2012)가 제안한 분석 절차에 따라 SPSS PROCESS model 6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부트스트래핑 표집은 5,000번으로 설정하였고 95%의 신뢰구간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PROCESS가 최종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부트스트랩 결과이고, 이는 sobel 검정의 가정인 정규분포를 가정하지 않고 자료에 집중해서 간접효과와 직접효과 값을 제시해주므로 편향이 적다는 장점을 지닌다(Preacher & Hayes, 2008).

결 과

우울, 사회적 낙인, 자기은폐 및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의 관계

우울, 사회적 낙인, 자기은폐, 및 전문적 도

움추구태도 간에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변인들의 단순 상관계수,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여 그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문적 도움추구태도는 우울($r=-.27, p<.001$), 사회적 낙인($r=-.52, p<0.001$) 및 자기은폐($r=-.33, p<.001$)에서 모두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우울은 사회적 낙인($r=.25,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자기은폐는 우울($r=.48, p<.001$) 및 사회적 낙인($r=.34, p<.001$)에서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과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의 관계에서 자기은폐와 사회적 낙인의 매개효과

노인의 우울과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의 관계에서 자기은폐와 사회적 낙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6번 모델을 사용해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먼저 우울은 사회적 낙인에 유의한 정적 영향($B=.27, P<.001$)을 주었고 우울에 대한 사회

표 1. 변인 간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분석 결과

	우울	사회적 낙인	자기은폐	전문적 도움추구태도
우울	1			
사회적 낙인	.25***	1		
자기은폐	.48***	.34***	1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27***	-.52***	-.33***	1
평균(M)	2.80	2.06	2.54	2.80
표준편차(SD)	.30	.47	.75	.30

주. *** $p<.001$

표 2. 우울과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의 관계에서 사회적 낙인과 자기은폐의 순차적 매개효과 검증

경로	B	SE	t	LLCI (하한값)	ULCI (상한값)	모형검증
우울 → 사회적 낙인	.27	.057	4.83 ^{***}	.1633	.3874	$R^2=.25$ $F=23.36^{***}$
우울 → 자기은폐	.73	.082	8.84 ^{***}	.5681	.8929	$R^2=.53$
사회적 낙인 → 자기은폐	.37	.077	4.83 ^{***}	.2214	.5256	$F=66.22^{***}$
우울 → 전문적 도움추구태도	-.06	.036	-1.68 [*]	-.1340	-.0103	$R^2=.55$
사회적 낙인 → 전문적 도움추구태도	-.29	.031	-9.26 ^{***}	-.3586	-.233	$F=48.38^{***}$
자기은폐 → 전문적 도움추구태도	-.053	.022	-2.40 [*]	-.0964	-.0096	

주. ^{***} $p < .001$, ^{**} $p < .01$, ^{*} $p < .05$

적 낙인의 설명력은 25%($R^2=.25$)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기은폐에 우울이 유의한 정적 영향($B=.73$, $P<.001$)을, 사회적 낙인도 유의한 정적 영향($B=.37$, $P<.001$)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은폐에 대한 우울, 사회적 낙인의 설명력은 53%($R^2=.53$)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 사회적 낙인, 자기은폐를 순차적으로 투입했을 때, 우울은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에 유의한 부적 영향($B=-.06$, $P<.05$)을, 사회적 낙인은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에 유의한 부적 영향($B=-.29$, $P<.001$)을 나타내었고 자기은폐도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에 유의한 부적 영향($B=-.53$,

$P<.05$)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에 대한 우울과 사회적 낙인, 자기은폐의 설명력은 55%($R^2=.55$)로 나타났다. 다음 분석 결과는 그림 1을 통해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회귀모형에서 나타난 세 개의 간접효과(우울→ 사회적 낙인 → 전문적 도움추구태도, 우울→ 은폐 → 전문적 도움추구태도, 우울→ 사회적 낙인 → 자기은폐 →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hrout와 Bolger(2002)가 제안한 부트스트래핑을 사용하였다. 부트스트래핑 표집은 5,000번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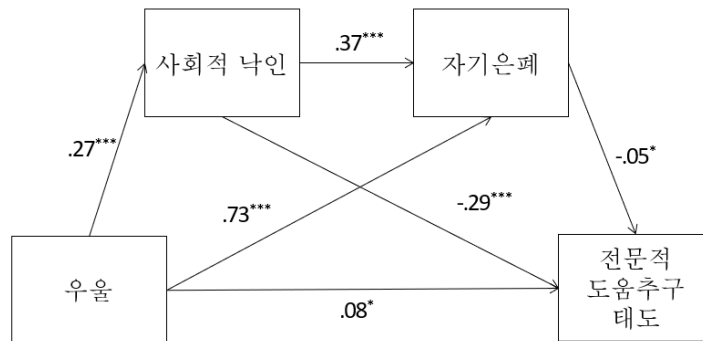


그림 1. 사회적 낙인과 자기은폐의 순차적 매개모형

표 3. 연구모형의 간접효과 분석 결과

경로	Bootstrap 추정치		95% 신뢰구간 (95% Bias-corrected CI)	
	<i>B</i>	<i>SE</i>	<i>LLCI</i>	<i>ULCI</i>
우울 → 사회적 낙인 → 전문적 도움추구태도	-.08	.02	-.1250	-.0426
우울 → 자기은폐 → 전문적 도움추구태도	-.03	.01	-.0744	-.0035
우울 → 사회적 낙인 → 자기은폐 → 전문적 도움추구태도	-.00	.00	-.0132	-.0004

설정하였으며 95%의 신뢰구간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우울이 사회적 낙인을 거쳐서 전문적 도움추구태도로 가는 간접효과는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아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 = -.08$, 95% Bias-corrected CI = $-.125 \sim -.0642$). 다음으로 우울이 자기은폐를 거쳐 전문적 도움추구태도로 가는 간접효과의 경우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아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 = -.03$, 95% Bias-corrected CI = $-.0744 \sim -.0035$). 마지막으로 우울이 사회적 낙인과 자기은폐를 순차적으로 거쳐 전문적 도움추구태도로 가는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B = -.00$, 95% Bias-corrected CI = $-.132 \sim -.0004$).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우울과 전문적 도움추구태도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낙인과 자기은폐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경로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노인들이 우울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심리내적인 과정과 특성을 이해하고, 노인 내담자에 대한 상담접근 방안을 고안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관분석을 통해 우울, 전문적 도움추구태도, 사회적 낙인과 자기은폐 간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주요 변인 모두 유의한 상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울은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와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이 우울을 경험하더라도 전문적인 도움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로 우울과 전문적 도움추구태도 간의 부적 상관을 밝힌 선행연구(조현주 외, 2008; Barney et al., 2006; Möller-Leimkühler, 2002; Halgin et al., 1987)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사회적 낙인, 자기은폐와 정적 상관을 보였고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사회적 낙인은 자기은폐와 정적 상관을,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자기은폐는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와 부적 상관을 보였다. 본 상관분석 결과를 기초로 추론해보면 우울을 경험하며 팽배해진 부정적 사고는 전문적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 주변 사람들이 가지는 편견인 사회적 낙인을 더욱 인식하게 되고, 자신에 대한 부정적 정보나 모습을 감추려는 자기은폐에 영향을 주어 어려움을 경험하더라도 전문적인 도움을 요청

하지 않으려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우울과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의 관계에서 사회적 낙인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우울이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유의하였고, 사회적 낙인에 정적 영향을 주고 사회적 낙인은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높은 우울이 사회적 낙인을 높이 지각하게 하며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우울을 경험할 때 어떠한 것도 자신의 우울한 기분을 완화시킬 수 없다는 부정적 사고가 팽배하고, 이러한 부정적 사고는 전문적 심리상담의 필요성이나 유용성에 대해 의심하며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변지영, 김선경, 2019). 우울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가 부정적으로 나타나며(조현주 등, 2008; Barney et al., 2006; Möller-Leimkühler, 2002; Halgin et al., 1987), 상담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낙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했던 선행연구 결과(정진철, 양남미, 2010; Bathje & Pryor, 2011; Vogel et al., 2007)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사회적 낙인이 전문적 도움을 요청하는 데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낙인을 감소하기 위한 전략이 수립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상담에 대한 낙인을 직접적으로 낮추려고 하기보다 심리상담과 관련된 환경적 맥락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즉, 노인들이 가지는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한 세대는 비슷한 시기에 성장과정을 거치며 그 당시의 사회·문화적 변화에 적응하면서 함께 공감하고 자신들만의 문화를 영위하며 다른 세대와

는 차별되는 독특한 특성을 형성한다(남은영, 2021). 이에 상담 및 심리치료에 대해 설명할 때, 현재 노인세대가 편하게 느낄 수 있는 익숙한 문구나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심리상담에 대하여 거부감 없이 친숙하게 이미지메이킹을 하여 상담 및 심리치료가 낯설거나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준다면 심리상담을 받는 것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셋째, 우울과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의 관계에서 자기은폐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우울과 전문적 도움추구태도 간에 직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이 자기은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었고, 자기은폐는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주는 부분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을 경험할수록 자기은폐 성향이 강해지고, 이로 인하여 전문적 도움추구태도를 회피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우울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침묵하게 됨에 따라 자기은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울로 인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을 억제하고 통제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면서 자신의 생각과 정서에 접촉할 기회를 잃게 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권도연, 현명호 2018)를 지지하며, 자기은폐가 전문적 도움추구에 회피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밝힌 선행연구(김하정, 장재홍 2019; 이운승, 유미숙 2017)와도 일치한다.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기개방으로 인한 정서적인 불편감이 야기될 수 있다(Wegner & Erber, 1992). 즉, 우울을 경험하더라도 자기은폐로 인한 어려움으로 자신을 감추고 표현을 하지 않게 되며 전문적 도움을 추구를

하지 않게 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Malatesta와 Izard(1984)는 노년기의 여성들은 정서 표현에 있어 위장(masking)을 잘하며, 여러 정서를 혼합해서 표현하기 때문에 정서 표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노인들은 정서표현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거나, 자신의 이야기를 은폐하는 특성이 두드러지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실시되었다(김단비, 주은선, 2020; 정윤희, 김희정, 2020). 우울을 경험함에도 지속적으로 정서 표현의 욕구를 억제하는 것은 심리적, 신체적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Pennebaker, 1985), 우울증을 가중시킬 수 있기에(Mongraine & Zuroff, 1994) 긍정적인 정서를 자주 경험하고 이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노년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유경, 민경환, 2005; Carstensen, 1992; Lawton, 1989)이다.

자기은폐로 인하여 전문적 도움추구를 꺼리는 노인에게 자기개방을 하게 되어 뒤따르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도움추구를 촉진하는 방안에 대해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상담 서비스 분야에서도 홍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상담의 필요성이나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부분만 강조하여 홍보하는 것은 오히려 상담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Mechanic, 2002). 따라서 상담과 심리치료에 대해 알리는 홍보 자료에 상담의 유익함이나 필요성만 설명하기보다, 처음 상담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은폐하려 하고 자기개방을 하는 것에 어려움과 곤란을 느낄 수 있음을 명시하여 타당화를 시켜주는 방안이 효과적일 수 있다(변지영, 김선경, 2019). 상담 및 심리치료에 대한 홍보활동이 실제 도움추구를 하는 것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담

이 진행되는 동안 내담자가 경험하게 될 심리적 부담감과 여러 저항이 있음을 알려주고, 이러한 과정을 겪으며 상담이 진정한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우울과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의 관계에서 사회적 낙인과 자기은폐의 이중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우울이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고 사회적 낙인과 자기은폐를 거쳐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하였으므로 부분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의 회피요인 뿐만 아니라 노인이 경험하는 우울도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변인임을 시사한다. 우울이 높은 노인은 상담을 받는 것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낙인찍힐 것이라는 불안을 경험하게 되고, 자신의 이야기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껴 가까운 주변인에게조차 자신의 은밀한 이야기를 공유하거나 논의하기 꺼리기 때문에(Larson & Chastain 1990),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에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게 되어 전문적 도움추구태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울 증상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된 Eigenhuis 등 (2021)의 질적연구에서도 참여자들이 예상되는 사회적 낙인으로 인하여 자신의 우울함과 관련된 증상을 타인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은폐하였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우울이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유의하고(변지영, 김선경, 2019), 사회적 낙인이 자기은폐에 영향을 주며(신지혜, 2016), 자기은폐가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에 영향을 미치는(김하정, 장재홍, 2019) 본 연구의 결과는 여러 선행연구를 지

지한다.

한편 대중매체에서 노인의 건강과 능력에 대한 부정적인 논조가 형성되어있다(오현정, 신경아, 2019). 뿐만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 젊은 세대들이 노인에 대해 사회에 짐이 되고 쇠약한 존재라고 표현하는 내용들이 확인되고 있다(Furunes & Mykletun, 2010). 주류사회의 편견과 차별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이러한 편견이 내면화될 수 있으며, 이러한 내면화된 낙인은 노인의 자신감과 삶의 태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Kim & Hocking 2018). 또한 우울을 정신질환으로 여기는 사회적 풍토를 비추어 생각해보았을 때, 우울한 노인은 스스로를 이증으로 낙인찍으며 상담 및 심리치료를 받는 것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강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사회적으로 만연했던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오랜 기간 노출되었던 노인은(Laidlaw & Knight, 2008) 전문적 도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탓에 왜곡된 정보로 자신을 통제하게 되어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길 꺼려하여 전문적 도움추구태도가 저해된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정보를 접하게 되는 경우 전문적 도움추구태도가 긍정적이게 변한다는 선행연구(오현수, 2012)를 토대로 노인들에게 전문적 도움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전문적 도움추구과정이 사회적으로 낙인찍히는 일이 아닌 자신에게 이롭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 은폐 경향성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노인의 상담에 대한 인식 제고와 더불어 노인에 대한 편견을 타파할 수 있도록 사회적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그동안 상담 및 심리치료 장면에서 소외되어왔던 노인을 대상으로 우울과 전

문적 도움추구태도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낙인과 자기은폐의 매개모형을 검증함으로써 노인이 상담 및 심리치료를 꺼리는 현상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노인이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할 때 상담 및 심리치료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 차원에서 낙인 감소의 필요성과 더불어 자기은폐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실천 영역에서 상담 전반에 대한 인식증대와 실천적 행동을 장려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는데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몇 가지 제한점을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온라인 패널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의 70%가 최종학력이 대학교 졸업 이상으로 나타나 노인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기에 한계가 있다. 또한 온라인 설문조사 패널로 참여하는 노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정보를 잘 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대 사회의 빠른 변화 속도를 감안하였을 때 디지털에 익숙하지 못한 노인과 익숙한 노인 간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둘째, 현재까지 여러 연령층을 대상으로 상담 및 심리치료를 받는 것에 대한 전문적 도움추구태도 연구가 논의되어왔으나, 노인을 대상으로 타당화된 척도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전문적 도움추구태도 척도(ATSPPH) 역시 노인의 상담 및 심리치료를 받는 것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우울이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에 유의하게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우울을 높게 지각할수록 전문적 기관에 도움을 추구하는 것이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계수의 크기가 낮아 해석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으로, 본 연구에서는 횡단 자료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인과성에 대한 추론은 제한적이어야 한다. 우울이 사회적 낙인 및 자기은폐에 영향을 주고,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만, 기타 요인들로 인해 전문적 도움추구에 부정적 태도를 갖게 된 것이라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후 후속 연구에서는 노인의 정보격차를 고려하여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에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는지 추가로 탐색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변인들 간의 인과성을 정확히 검증하기 위해 교차지연설계 등 종단 자료 분석을 통해 어떠한 관계가 유의한지 확인함으로써 보다 풍부한 이론적 함의를 검증되었으면 한다. 또한 다른 세대에 비하여 상담 및 심리치료 장면에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 왔던 노인에게 적합한 전문적 도움추구태도 척도개발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참고문헌

곽지현, 이민규 (2006). 심리적 통제전략과 안녕감 간의 관계. *한국노년학*, 26(3), 565-580.

강선경, 이춘희 (2023). 노년층의 인터넷 중독과 생활만족도의 관계에서 우울의 완전매개. *한국노년학*, 43(3), 375-391.

국립정신건강센터 (2018). 정신건강현황 4차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http://www.ncmh.go.kr/mentalhealth/board/boardView.do?no=8477&menu_cd=04_02_00_01&bn=newsView

권도연, 현명호 (2018). 우울과 이상섭식 행동의 관계에서 자기침묵과 정서조절곤란의

직렬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3(4), 1075-1093.

권미애, 김태현 (2008).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자원봉사활동 집단과 경제활동 집단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8(4), 1089-1111.

권소연, 이영순 (2022). 노인의 연령주의와 전문적 심리상담 도움추구태도 간의 관계: 사회적 낙인과 자기 낙인의 매개효과. *한국교육치료학회*, 14(3), 371-492.

김단비, 주은선 (2020). 노인상담에 대한 노인들의 내적 지각 탐색-CQR-M 방식을 활용하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0), 369-384.

김동민, 양대회 (2010). 전문적 도움추구 행동에 미치는 자기은폐 성향의 영향 분석. *한국교육문제연구*, 28(2), 95-108.

김은아, 손혜련, 김은하 (2018). 상담에서 전문적 도움추구의 선행요인에 대한 고찰. *상담학연구*, 19(1), 87-111.

김주미, 유성경 (2002).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에 미치는 심리적, 문화적 요인. *한국상담심리학회*, 14(4), 991-1002.

김하정, 장재홍 (2019).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거절민감성이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은폐의 매개효과. *서강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40(1), 85-103.

김희경 (2002). 기혼 여성의 우울 증상과 도움 추구 태도에 관한 통합모형 검증.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희철 (2018). 대학생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와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의 관계에서 낙인의 매개효과. *정신보건과 사회산업*, 46(1), 5-33

남은영 (2021). 이모티콘 이용 동기가 사회적 거

- 리감에 따라 사용자 태도,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MZ세대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인복지법 (2018).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박병선, 정수용 (2020). 축약형 우울척도 (Andersen form CES-D-10)의 중단적 측정불변성 검증.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964-966.
- 배강대, 이현림 (2006). 회상을 활용한 지지적 집단상담이 노인의 무력감, 우울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상담학연구, 7(2), 745-759.
- 배민영, 김신열 (2022). 사회적 배제, 지역사회공동체 의식 및 지역사회 주민참여가 농촌 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77(3), 45-73.
- 변지영, 김선경 (2019). 남성 성역할갈등과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우울과 자기개방 예상 위험의 순차적 매개효과. 한국상담학회, 20(3), 443-463.
- 신연희 (2004).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에서 접근 요인과 회피요인의 상대적 중요성 고찰.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연희, 안현의 (2005).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에서 접근요인과 회피요인의 상대적 중요성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1), 177-195.
- 신지혜. (2016). 낙인지각, 자기은폐, 모-치료자 관계: 놀이치료 내담아동 모를 중심으로 한 구조적 관계.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정신 (2015). Erikson의 9단계 노년초월척도의 한국판 타당화.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6(1), 51-61.
- 오승환, 윤동성 (2006). 노인의 삶의 질 특성에 관한 연구: 도시·농촌·어촌지역을 비교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32, 119-147.
- 오현수 (2012). 일반 내담자의 상담요청 결정과정에 관한 질적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현정, 신경아 (2019). 한국 언론은 '노인'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는가?: 2010년 이후의 노인 관련 언론 보도 특성 분석. 홍보학 연구, 23(4), 40-68.
- 유 경, 민경환 (2005). 정서 대처 양식과 정서 인식이 장노년기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4), 1-18.
- 유성경 (1998). 우울의 표현 및 상담에 대한 태도에 관한 문화간 비교연구: 한국 대학생과 미국 대학생 간의 비교. 청소년상담연구, 6, 93-114.
- 윤지영 (2007). 낙인, 자기은폐, 자기개방이 도움추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민지, 손은정 (2007). 낙인과 전문적 도움추구의도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4), 949-966.
- 이석재, 최상진 (2001). 체면지향행동의 이원구조모델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2), 65-83.
- 이윤승, 유미숙 (2017). 상담군 아동 어머니와 비상담군 아동 어머니의 자기낙인, 자기은폐, 사회적 지지수용도가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아동연구소, 26(1), 37-56.
- 이지원, 남숙경 (2016). 성별에 따른 정서표현 양가성이 전문적 도움추구에 미치는 영향: 자기개방과 자기은폐의 매개효과. 교

- 육방법연구, 28(4), 721-741.
- 이지현, 양수진 (2019). 노인의 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자아통합감과 회복탄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2(4), 151-169.
- 이호선 (2012). *노인상담(2판)*. 학지사.
- 이희성, 권순호 (2020). 초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노동법논총*, 50, 1-29.
- 장진이 (2001). 자기 은폐(self-concealment)와 정서 표현 성향, 지각된 사회적 지지 그리고 도움 추구 태도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관용 (2016). *고령사회의 노인상담이 우울 감소와 자살예방에 미치는 효과예측에 관한 연구*. 서울벤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미경 (2017). *행복한 노년의 삶을 위한 노인상담*. 시그마프레스.
- 정순돌, 임정숙, 박나리 (2015). 노인의 상담경험과 상담욕구가 상담기대감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관 이용자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35(3), 609-625.
- 정윤희 (2019). 노인내담자의 상담경험에 관한 해석학적, 지각된 사회적 지지 그리고 도움 추구 태도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윤희, 김희정 (2020). 노인 내담자의 상담경험에 관한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2), 693-723.
- 정진철, 양난미 (2010). 낙인과 자존감, 전문적 도움추구태도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3), 631-652.
- 조현주, 임현우, 조선진, 방명희 (2008). 성인 남녀의 우울감 특징과 전문적 도움추구에
서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3(3), 283-297.
- 주용국 (2009). *상담일반: “노인다움” 노화 지원을 위한 상담, 교육 모형의 개발*. 상담학연구, 10(1), 17-42.
- 진경미, 권경인 (2015). 기업체 종사자의 전문적 상담 추구 의도에 대한 연구: 사회적 낙인, 자기 낙인과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1), 109-128.
- 최상진, 김기범 (2000). 체면(體面)의 심리적 구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1), 185-202.
- 최상진, 유승엽 (1992). 한국인의 체면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한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6(2), 137-157.
- 최원일 (2020). *나이 들의 이로움*. 광주과학기술원.
- 최희철, 김지현 (2008). 성역할 갈등과 우울 및 전문적 도움추구를 향한 태도의 관계에 대한 자기은폐의 매개효과: 남자중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상담학회 학술발표논문지*, 112-112.
- 통계청 (2019). *장래인구추계*.
https://www.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73873
- 통계청 (2021). *고령인구비율*.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403253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2020 노인실태조사*.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901&CONT_SEQ=366496
- 황연미 (2009). *남자 대학생의 성역할과 전문적*

- 도움 추구와의 관계에서 자기낙인과 자기공개 기대의 매개효과.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Andresen, E. M., Malmgren, J. A., Carter, W. B., & Patrick, D. L. (1994). Screening for depression in well older adults: Evaluation of a short form of the CES-D.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10*(2), 77-84.
-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79-211.
- Barney, L. J., Griffiths, K. M., Jorm, A. F., & Christensen, H. (2006). Stigma about depression and its impact on help-seeking intentions. *Australian &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40*(1), 51-54.
- Bathje, G., & Pryor, J. (2011). The relationships of public and self-stigma to seeking mental health services.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33*(2), 161-176.
- Blazer, D. (2003). Depression in late life: Review and commentary. *Journal of Gerontology: Medical Sciences, 58A*(3), 249-265.
- Blazer, D. G. (2008). How do you feel about...? Health outcomes in late life and self-perceptions of health and well-being. *The Gerontologist, 48*(4), 415-422.
- Carstensen, L. L. (1992). Social and emotional patterns in adulthood: Support for socio-emotional selectivity theory. *Psychology and Aging, 7*(3), 331-338.
- Castel, A. D. (2018). *Better with age: The psychology of successful aging*. Oxford University Press.
- Cepeda-Benito, A., & Short, P. (1998). Self-concealment, avoidance of psychological services, and perceived likelihood of seeking professional help.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1), 58.
- Colasanti, V., Marianetti, M., Micacchi, F., Amabile, G. A., & Mina, C. (2010). Tests for the evaluation of depression in the elderly: a systematic review. *Archives of Gerontology and Geriatrics, 50*(2), 227-230.
- Cramer, K. M. (1999). Psychological antecedents to help-seeking behavior: A reanalysis using path modeling structur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6*(3), 381-387.
- Depp, C. A., & Jeste, D. V. (2006). Definitions and predictors of successful aging: a comprehensive review of larger quantitative studies. *The American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14*(1), 6-20.
- Do Couto, F. S., Lunet, N., & Ginó, S. (2016). Depression with melancholic features is associated with higher long-term risk for dementia.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202*, 220-229.
- Dreizler, J., Koppitz, A., Probst, S. & Mahrer-Imhof, R. (2014). Including nurses in care models for older people with mild to moderate depression: An integrative review. *Journal of Clinical Nursing, 23*(7-8), 911-926.
- Eigenhuis, E., Waumans, R. C., Muntingh, A. D., Westerman, M. J., van Meijel, M., Batelaan, N. M., & van Balkom, A. J. (2021). Facilitating factors and barriers in help-seeking behaviour in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with depressive symptoms: A qualitative study. *PloSone, 16*(3), e0247516.
- Eisenberg, D., Downs, M. F., Golberstein, E., &

- Zivin, K. (2009). Stigma and help seeking for mental health among college students. *Medical Care Research and Review*, 66(5), 522-541.
- Erikson, E. H. (1994). *Identity and the life cycle*. WW Norton & company.
- Fallon, B. J., & Bowles, T. V. (2001). Family functioning and adolescent help seeking behavior. *Family Relations*, 50(3), 239-245.
- Fisher, E. H., & Turner, J. L. (1970). Orientations to seeking professional help: Development and research utility of an attitude scal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5(1p1), 79-90.
- Friedlmeier, W., Corapci, F., & Cole, P. M. (2011). Emotion socialization in cross cultural perspective.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5(7), 410-427.
- Furunes, T., & Mykletun, R. J. (2010). Age discrimination in the workplace: Validation of the nordic age discrimination scale (NADS).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51(1), 23-30.
- Greenly, J. R., & Mechanic, D. (1976). Social selection in seeking help for psychological problems. *Journal of Health & Social Behavior*, 17(3), 249-262.
- Halgin, R. P., Weaver, D. D., Edell, W. S., & Spencer, P. G. (1987). Relation of depression and help-seeking history to 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4(2), 177.
- Hamachek, D. (1990). Evaluating self concept and ego status in Erikson's last three psychosocial stage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68(6), 677-683.
- Hayes, A. F. (2012). PROCESS: A versatile computational tool for observed variable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modeling[White paper]. Retrieved from <http://www.afhayes.com/public/process2012.pdf>
- Holmes, E. P., & River, L. P. (1998). Individual strategies for coping with the stigma of severe mental illness. *Cognitive and Behavioral Practice*, 5(2), 231-239.
- Hyer, L. (2014). *Psychological Treatment of Older adults.: A holistic model*.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Kahn, J. H., & Garrison, A. M. (2009). Emotional self-disclosure and emotional avoidance: Relations with symptoms of depression and anxie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6(4), 573-584.
- Kelly, A. E., & Achter, J. A. (1995). Self-concealment and attitudes toward counseling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2(1), 40-46.
- Kim, H., & Hocking, C. (2018). The stories of North Korean refugees settling in South Korea: Implications for South Korean educators. *Multicultural Education Review*, 10(3), 203-223.
- Komiya, N., Good, G. E., & Sherrod, N. B. (2000). Emotional openness as a predictor of college students' attitudes toward seeking psychological help.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1), 138-143.
- Kushner, M. G., & Sher, K. J. (1989). Fears of psychological treatment and its relation to mental health service avoidance.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20(4), 251-257.
- Kushner, M. G., & Sher, K. J. (1991). The

- relation of treatment fearfulness and psychological service utilization: An overview.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22(3), 196-203.
- Laidlaw, K., & Knight, B. (Eds.). (2008). *Handbook of emotional disorders in later life: Assessment and treatment*. Oxford University Press.
- Larson, D. G., & Chastain, R. L. (1990). Self-concealment: Conceptualization, measurement, and health implication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9(4), 439-455.
- Lawton, M. P. (1989). Environmental proactivity and affect in older people. In S. Spacapan & S. Oskamp (Eds.), *The social psychology of aging*(pp. 135-163). Newbury Park: Sage.
- Lee, J. D., & Craft, E. A. (2002). Protecting one's self from a stigmatized disease... once one has it. *Deviant Behavior*, 23(3), 267-299.
- Leong, F. T., & Lau, A. S. (2001). Barriers to providing effective mental health services Asian Americans. *Mental Health Services Research*, 3(4), 201-214.
- Leong, F. T., & Zachar, P. (1999). Gender and opinions about mental illness as predictors of 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 *British Journal of Guidance & Counselling*, 27(1), 123-132.
- Louie, J. Y., Oh, B. J., & Lau, A. S. (2013). Cultural differences in the links between parental control and children's emotional expressivity.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19(4), 424.
- Malatesta, C. Z., & Izard, C. E. (1984). *Emotions in adult development*. Beverly Hills: Sage.
- Mechanic, D. (2002). Disadvantage, inequality, and social policy. *Health Affairs*, 21(2), 48-59.
- Mongraine, M., & Zuroff, D. C. (1994).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and negative life events: Mediators of depressive symptoms independent and self-critical individual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6(3), 447-458.
- Möller-Leimkühler, A. M. (2002). Barriers to help-seeking by men: A review of sociocultural and clinical literature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depression.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71(1-3), 1-9.
- Nam, S. K., Choi, S. I., Lee, J. H., Lee, M. K., Kim, A. R., & Lee, S. M. (2013). Psychological factors in college students' 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 A meta-analysis.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44(1), 37-45.
- Nygren, B., Aléx, L., Jonsén, E., Gustafson, Y., Norberg, A., & Lundman, B. (2005). Resilience, sense of coherence, purpose in life and self-transcendence in relation to perceived physical and mental health among the oldest old. *Aging & Mental health*, 9(4), 354-362.
- Obasi, E. M., & Leong, F. T. (2009). Psychological distress, acculturation, and mental health-seeking attitudes among people of African descent in the United States: A preliminary investig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6(2), 227.
- Owen, J., Thomas, L., & Rodolfa, E. (2013). Stigma for seeking therapy: Self-stigma, social stigma, and therapeutic processe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41(6), 857-880.
- Pennebaker, J. W. (1985). Traumatic experience

- and psychosomatic disease: Exploring the roles of behavior inhibition, obsession and confiding. *Canadian Psychology*, 26(2), 82-95.
- Preacher, K. J., & Hayes, A. F. (2008). Asymptotic and resampling strategies for assessing and comparing indirect effects in multiple mediator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40(3), 879-891.
- Rickwood, D. J., & Braithwaite, V. A. (1994). Social-psychological factors affecting help-seeking for emotional problems. *Social science & medicine*, 39(4), 563-572.
- Schomerus, G., Matschinger, H., & Angermeyer, M. C. (2009). The stigma of psychiatric treatment and help-seeking intentions for depression. *European Archives of Psychiatry and Clinical Neuroscience*, 259, 298-306.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Sibicky, M., & Dovidio, J. F. (1986). Stigma of psychological therapy: Stereotypes, interpersonal reactions, and the self-fulfilling prophec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3(2), 148-154.
- Sirey, J. A., Bruce, M. L., Alexopoulos, G. S., Perlick, D. A., Raue, P., Friedman, S. J., & Meyers, B. S. (2001). Perceived stigma as a predictor of treatment discontinuation in young and older outpatients with depression.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8(3), 479-481.
- Sjöberg, L., Karlsson, B., Atti, A. R., Skoog, I., Fratiglioni, L., & Wang, H. X. (2017). Prevalence of depression: Comparisons of different depression definitions in population-based samples of older adult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221, 123-131.
- Snowden, M., Steinman, L., & Frederick, J. (2008). Peer reviewed: treating depression in older adults: challenges to implementing the recommendations of an expert panel. *Preventing Chronic Disease*, 5(1).
- Soysal, P., Veronese, N., Thompson, T., Kahl, K. G., Fernandes, B. S., Prina, A. M., Solmi, M., Schofield, P., Koyanagi, A., Tseng, P. T., Lin, P. Y., Chu, C. H., Cosco, T. D., Cesari, M., Carvalhp, A. F., & Stubbs, B. (2017).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frailty in older adult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Ageing research reviews*, 36, 78-87.
- Ting, J. Y., & Hwang, W. C. (2009). Cultural influences on help seeking attitudes in Asian American student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9(1), 125-132.
- Vaillant, G. E., & Mukamal, K. (2001). Successful aging.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8(6), 839-847.
- Vogel, D. L., & Wester, S. R. (2003). To seek help or not to seek help: The risks of self-disclosur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3), 351-361.
- Vogel, D. L., Wade, N. G., & Hackler, A. H. (2007). Perceived public stigma and the willingness to seek counseling: The mediating roles of self-stigma and attitudes toward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4(1), 40.
- Vogel, D. L., Wester, S. R., & Larson, L. M. (2007). Avoidance of counseling: Psychological factors that inhibit seeking help. *Journal of*

- Counseling & Development*, 85(4), 410-422.
- Von Faber, M., van der Geest, G., van der Weele, G. M., Blom, J. W., van der Mast, R. C., Reis, R., & Gussekloo, J. (2016). Older people coping with low mood: a qualitative study. *International psychogeriatrics*, 28(4), 603-612.
- Wegner, D. M., & Erber, R. (1992). The hyperaccessibility of suppressed though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6), 903.

원 고 접 수 일 : 2023. 05. 02

수정원고접수일 : 2023. 07. 17

게 재 결 정 일 : 2023. 09. 13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Professional Help-Seeking Attitudes in the Elderly: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tigma and Self-Concealment

so-yeon kweon

young-soon Lee

Jeonbuk National University

/ Doctoral Student

/ Professor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dual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tigma and self-concealme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professional help-seeking attitudes in the elderly. A total of 330 elderly participants completed the survey.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5.0, with the verification of the dual mediating effect conducted through SPSS PROCESS Macro model 6, and significance confirmation achieved via the bootstrap method. The following are the key findings. First, a correlat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confirm the relationships between all variables. Second, social stigma and self-concealment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professional help-seeking attitudes. Thir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professional help-seeking attitudes, social stigma and self-concealment showed a significant dual mediating effect. Drawing from these results, the study discusses its significance, outlines limitations, and proposes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Key words : depression, social stigma, self-concealment, professional help-seeking attitudes, elderly counseling